(6) 송익필과 이이와 성혼의 교유

강민우: 『율곡연보』에 따르면, 송익필 선생이 성혼·이이와 우정을 맺고 학문적 교유를 시작하였다지요.

송익필: 이때가 1544년으로, 제가 21세, 이이는 19세, 성혼은 20세입니다. 이때 이이는 금강산에서 1년 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다시 파주로 돌아온 뒤입니다. 또한 저는 박순(朴淳)·정철 등과도 우정을 맺고 학문을 연마합니다. 우리의 교유는 단순히 20세 청년들의 친목 단계가 아닙니다. 저는 25세 때(1558)에 이이 등과 별시(別試)에 응시하여 합격합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관리이던 이해수가 서얼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하여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합니다. 한양에서 치러지는 대과(大科, 별시에 합격한 자들이 볼 수 있는 과거)에서 금지당합니다.

강민우: 그 후 선생님은 파주의 구봉(龜峯), 즉 지금의 파주시 교하읍 심학산 자락으로 돌아와서 강학을 시작하였군요. 이때부터 구봉 선생으로 불렸으며, 김장생 등이 선생님에게 수학하였지요.

송익필: 1586년 아버지 송사련이 일으킨 '신사무옥'이 그야말로 거짓 일로 밝혀지고, 아버지에 의해 죽은 안당의 아들 안처겸의 신원이 이루어지자, 아버지의 관직이 삭탈 됩니다. 저의 할머니가 노비였다는 이유로 저의 식솔 70여 명이 졸지에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저는 이때 정철의 도움으로 전라도 광주로 피신하게 되죠.

강민우: 그렇지만 선생님의 일생에서 27세부터 53세까지는 그래도 평탄한 시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송익필: 약 26년 동안은 저는 강론도 하며 이이·성혼 등과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을 토론하던 시기입니다. 동양에서 이상적인 친구 관계를 군자지교(君子之交)라고 합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담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다." "좋은 사람과 지내면 향기로운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 오래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더라도 곧 그와 동화된다. 좋지 못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절인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더라도 역시 그와 동화된다." 이 두 문장은 일반적으로 친구의 사귐을 설명할 때 많이 인용합니다. 저와 이이·성혼과의 사귐은 단지 인간적인 교유에 그치지 않고 특별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신분의 벽을 넘었고, 학문과 정치의 영역에까지 돈독한 우의를 지속했습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이이·성혼과 함께 우정을 나누어 기호 유학의 기반을 형성하고, 김장생 등을 가르쳐서 후일 기호 유학 성립에 큰 영향을 남긴 것이군요.

송익필: 저의 생애는 신분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역경 속을 헤치며 살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당시 조선은 신분적 차별이 심한 사회였습니다. 개인의 학문적 이상과 가문의 흥망성쇠를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출세의 길은 오직 과거시험을 통해 관직에 들어서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저는 천민이라는 신분의 굴레로 인해 관직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것

입니다.

강민우: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송익필: 제가 살던 시대적 배경은 조선 왕조 건립에 공을 세운 훈구세력과 새롭게 성장한 지방의 사림세력 간의 정치적 세력 다툼으로 많은 선비가 화를 당하던 4대 사화가 일어났고, 정여립의 모반사건으로 시작된 1589년 '기축옥사'는 많은 선비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밖으로는 1583년 여진족의 침입과 남쪽으로 왜적의 잦은 침입 끝에 임진왜란을 겪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사회는 피폐해지고, 일반 백성들의 생활고는 끼니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강민우: 하물며 천민의 신분으로 학문에 뜻을 두고 성취를 이룬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겠군요. 선생님은 학문적 성취와 덕망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시험을 통한 관직의 길은 허용되지 않고 신분의 한계로 어려운 역경 속의 삶을 살아갔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요.

송익필: 조선시대 보통 사람들이 출세하는 길은 오직 과거제도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관직의 길로 나아가 유학의 이상인 내성외왕(內聖外王)의 도를 펼치게 됩니다. '내성외왕'이란 안으로는 성인의 덕을 갖추고 밖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경세의 능력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신분의 제약으로 관직의 길이 막혀서 경세를 펼칠 수 없는 어두운 현실을, 시를 읊어서 토로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세속을 벗어나고자 하는 도가적 시풍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신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학문에 뜻을 두고 투철하게 실천하여 큰 업적을 남긴 것은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유학자로서 의지를 굽히지 않은 데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송익필: 저는 특별한 스승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중국 송나라의 성리학자 주희의 문집인『주자대전』전체를 암기할 정도였습니다. 저의 학문적 성취는 20세 초반부터 함께한 이이와 성혼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서로 다르고 가문의 학풍이 다르며 성격도 달랐지만 변치 않는 학문과 우정을 나눕니다. 이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절세의 우정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나눈 우정은 주고받은 편지글인『삼현수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삼현수간』은 본래 저의 문집 속「현승편(玄繩編)」에 실려 있는 것으로, 후세 학자들이『삼현수간』이라 이름 붙이고 따로 떼어서 책으로 엮어 오늘날 보물 1415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강민우: 중국과 일본에까지 알려졌던 송익필·성혼·이이 삼현(三賢)의 우정은 오늘날까지도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귀감을 삼습니다.

송익필: 무엇보다 저의 할머니가 천민이라는 신분의 약점을 지닌 것을, 이들이 20세 전후 파주에서 교유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서로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이와 성혼은 저와 우정을 맺고, 또한 저의 부친이 사림들에게 허물을 지은 '신사무옥'의 장본인임을 알면서도 교유를 허락한 것은 오늘날 친구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강민우: 편견과 차별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의 학문적 비범함 때문이 아닐까요. 이이가 장원급제한 당시, 과거시험 문제로 나온 <천도책>에 대하여 질문하는 선비들에게 "송익필이 밝고 뛰어나니 그에게 물어보라"라고 한 점에서도 알 수 있지요. 또한 이이가 성혼에게 보낸 편지에서 "송익필만이 성리학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 말에서도 찾을 수 있겠죠. 이러한 말은 선생님의 학문에 대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성혼도 예학·성리학·수양론 및 관직에 대한 출처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선생님에게 질정했다지요.

송익필: 이이가 지은 『격몽요결』과 『소학집주』, 『순언』, 서모에 대한 예법 등에 대하여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함으로써 서로 가르치면서 배움을 이룹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학문 정신은 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지요. 대표적인 시 한 편을 소개해 주세요.

송익필: "이 몸은 진·한 뒤에 태어났으나, 정신만은 우·탕의 선대와 부합되네." (『구봉집』 권1) 저 자신이 비록 진나라와 한나라의 시대 뒤에 태어났지만, 정신만은 우임금과 탕임금의 선대와 부합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선왕으로서 요임금과 순임금을 말하지 않고, 우임금과 탕임금을 말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자연한 본성을 정치에 실현한 대표적인 성왕이지만, 우임금과 탕임금은 인간적인 노력과 실천을 통해 이상 정치를 실현한 성왕이기 때문입니다.

강민우: 또한 선생님에 대한 서기(徐起)의 평가도 훌륭하다지요.

송익필: 서기의 저에 대한 평가는 송시열의 문집에 보입니다. "너희들이 제갈공명을 알고 싶으면 송익필을 보면 될 것이다.……나는 제갈공명이 송익필과 비슷했으리라 여긴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신출귀몰하고 바람과 비를 자유자재로 불러오게 하여 병법과 군사의 전술전략의 귀재인 제갈공명보다 저를 높게 평가하는 듯합니다. 과찬입니다.

강민우: 또한 조헌은 상소문에서 군기(軍機)를 관장하는 인물로 선생님을 천거했다지요. 이로 보면, 선생님은 문무(文武)의 기량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헌과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송익필: 저는 당시 화를 피하여 조헌이 관직으로 있던 옥천과 보은(報恩) 등지에서 지내던 차에 왕래하게 된 것입니다.

강민우: 조헌은 선생님에 대해 "송익필은 노년에도 독서에 힘써 학문이 깊고 경서에 밝았으며, 언행이 바르고 제 아비의 허물을 덮을 만하였다. 이이와 성혼도 모두 그를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친구로 여겼다"라고 했다지요. 그리고 송익필 선생에게 배운 송이창은 동국 18현

에 배향된 송준길(宋浚吉)의 부친이며, 김장생의 부친 김계휘는 송준길의 외종조부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충남의 기호 유학에서 선생님의 학문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군요.

송익필: 송이창은 저에게 배운 실천 중심의 학문을 그의 아들 송준길에게 가학(家學)으로 전하여 훗날 김장생과 함께 기호 예학을 정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의 학문은 유교 경전 중심의 사변적인 학풍보다는 예학처럼 실천적 학풍을 중시합니다. 유학 본래의 실천성이 김장생과 송준길 등 후학들에게 전해지고, 이것이 기호 유학의 기반이 됩니다.

강민우: 기호 예학의 종장 김장생이 지은 『의례문해(疑禮問解)』는 거의 절반이 김장생과 송준길이 주고받은 <예문답>의 내용이라지요.

송익필: 기호 예학에서 예에 관한 문답 형식의 예서가 만들어진 것은 김장생이 저에게 예학에 관해 가르침을 전수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이·성혼·정철·김장생 등과 예에 관한 문답을 주고받았는데, 이것이 저의 문집 속에 「예문답(禮問答)」으로 전해집니다.

강민우: 선생님에 대한 송준길의 평가는 조선의 예학사와 기호 유학에서 그 학문적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해주네요. "김장생이 이이 선생을 사사하여 도를 이루고 덕을 높였으나, 그가 빗장을 빼고 열쇠를 열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준 사람이 바로 송익필 선생인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선생님에 대한 송시열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익필 선생은 오직 의리를 밝혀서 자신을 닦고 그것을 후세에까지 전함으로써 지금 김장생의 학문이 세상의 으뜸이 되었으니, 송익필 선생이 우리 학문에 큰 공을 남겼다." 충청도 관찰사 홍계희(洪啟禧)의 평가도 같습니다. "송익필은 바로 이이·성혼과 사귄 벗이고 김장생의 스승이다. 그의 경학이 일세의 표준이 되어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송익필 선생이라 일컫는다. 학행이 탁월한데 그 문벌이 미천한 연유로 아직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등.

송익필: 이러한 노력 때문에 1752년 제가 죽은 뒤 153년 만에 천민에서 풀려나 신원되고 '동덕랑행사헌부지평'에 추증됩니다. 제가 죽은 뒤 163년 만인 1762년에야 김장생의 현손인 김상성에 의해 저의 문집인 『구봉집』이 간행됩니다.

강민우: 선생님이 신분의 제약에서 풀려나서 시호를 받으며 문집이 간행된 것은 150년도 더 지난 뒤입니다. 무려 다섯 세대의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선생님의 문집 내용은 다른 유학자들의 문집보다 분량이 적다고 여겨집니다. 또 충남의 유학자인 윤봉구(尹鳳九)는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하의 문인으로, 강문팔학사의 한 사람입니다. 윤봉구는 1720년에 송익필의 충남 당진시 북면 원당동 묘소 옆에 현재의 입한재(立限齋)를 세웠다죠.

송익필: '강문팔학사'는 조선시대의 학자인 권상하 문하에 있던 8인의 충청도 제자를 말합니다. 송시열의 수제자였던 권상하는 충청도 청풍의 황강(黃江) 옆 한수재(寒水齋)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하생들을 '강문(江門)의 제자'라고 하고, 그중에서 특히 저명한 여덟 명의 제자를 '강문팔학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명단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한원진·이간·윤봉구·채지홍·한홍조·현상벽·윤혼 등을 칭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성만징·이이근·최징후를 넣고,

윤봉구·한홍조·윤혼을 빼기도 합니다.

강민우: 이상의 평가를 통해서 볼 때, 선생님이 남긴 학문적 공헌이 실로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학들의 노력으로 영조 때(1752)에 지평에 추증되고 순종 때(1910)에는 '문경(文敬)'의 시호를 받게 되었군요.

송익필: 저는 신분의 굴레에 얽매여 시대적 역경의 삶을 살았지만, 학문과 수양의 실천에서 선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비록 관직의 길에 나아가 유학이 지향하는 이상적 정치를 직접 펼 수는 없었지만,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유학자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강민우: 그래서 선생님은 이이·성혼과 함께 기호 유학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고, 아울러 김장생을 교육하여 기호 예학을 완성하는데 큰 업적을 남긴 것이죠.